

“고기 잡고 나면 통발 잊어라”

말에 떨어지다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지만 하면, 어찌해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話墮)’고 하십니까?” “네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든, 무슨 잘못에 떨어졌이 있었느냐?”

“네 스스로 못 알아듣는 것이 허물이지, 그 자리에 무슨 허물이 있겠어?” 하는 말이다. 말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은 배후 자신이 분별하는 것일 뿐이다. 황백스님이 뭐라고 말하든, 배후가 거기에 사로잡혀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다.

사문이란 무심한 사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언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실다운 법이란 대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거든, 네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다는 말이냐?”

실상은 한 번도 실다운 법을 떠나서 작용한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전도모상 하고 있는 것이다.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곳은 어떠하십니까?”

“사물을 통해 자신을 비취볼지언정, 남의 일에는 상관할 것이 없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짖어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과 또한 다르지 않다.”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종은 위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이래, 알음알이(知解)를 구하게 한 적은 없었다. 오로지 ‘도를 배우라.’고 했지만, 이것도 교화하는 방편으로 한 말이다. 사실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으로서, 알음알이를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닭야할 도가 없거든, 무엇을 가져서 닭고 말고 하겠나. 논리적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허물을 범하는 줄 모르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공부하는 줄 착각하지만, 그런 것은 공부 아니다. 아무 재미가 없든 하루 종일 재미가 나든, ‘아나, 모르나’ 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도에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승의 마음(大乘心)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팎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다.

분별심 때문에 진짜 귀한 것을 놓치고 산다. 하지만 한 생각 돌이킨 뒤에 지혜롭게 분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20>



범어사 주지

“잡다운 법이란 없었나요”

“묻는 곳에서 전도 되는구나”

“대답하신 곳은 어떠하십니까”

“남의일에 상관할 것 없다”

알음알이 배우는데 뜻을 내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대승의 마음은 안팎 중간 등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다

사랑 다하면 방위 처소 없어

농을줄 모르면 허물을 짓는다

눈밝은 사람 만나 최선다해

근본 해결해야 ‘도’ 알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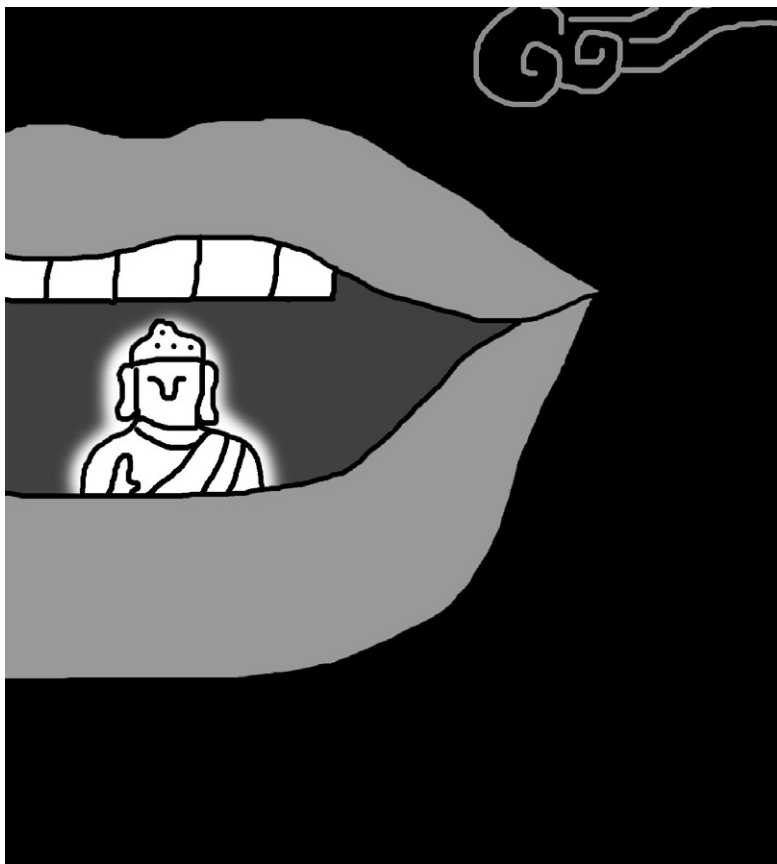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별하는 것은 분별심이 아니다. 하루 종일 분별해도 분별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놓을 줄 알면 되지만, 놓을 줄 모르면 일으키는 것마다 허물을 짓는 것이다.

절대로 알음알이를 지어 사랑(思量)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랑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으로 헤아리며 미혹하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 일을 자상히 설명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찾고 구하고 헤아리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배우고 이해는 해도, 도를 밝히지는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고 속아 넘어가는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가져야, 비로소 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해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에 얽매어서 알음알이를 버서는 안 된다.

‘도’라고 하니까 다시 ‘도’라고 따라하며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고는 배운 대로 이해하여, 마치 깨달은 양 착각한다. 하지만 돈오하는 체험 없이 이해만으로는, 어떤 것도 소화하지 못한다. 이론적인 근거를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한 생각 돌이켜서 ‘이것이 로구나!’ 하는 맛을 본다면 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고 하는 것이다. 목적을 이뤘으면 수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게 된다. 본원에 통달했기에 사문(沙門)이라 부른다.

머리를 깎지 않았어도, 도 깨쳐서 환전한 사람이 사문이다. 한 생각 돌이켜 근본 모습을 보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로 나아가는 문을 해탈문 혹은 불이문이라고 한다. 이 문에 들어간 이를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절집에 살면서 입구에 세워놓은 불이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사문이 아니다. 마음 깨친 사람이 사는 곳이 진정한 절집이다.

사문의 과보는 사려를 그쳐서 이루는 것이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남의 셋집 살듯,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면서 배워서 얻으려 하니, 대체 언제 이루겠는가? 옛 사람들은 총명하여 한마디 듣자마자 당장에 배움을 끊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움을 끊어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라고 했던 것이다. 반면 지금 사람들은 한없이 알음알이를 구하고, 널리 글의 뜻을 깨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넓은 지식과 견해 때문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이 배워서 학문적인 바탕이 뛰어난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불조의 가르침을 이으려면, 세속적인 배움에 나가떨어져서는 안 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모든 훌륭한 선인(善人)들을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아미타경)

나는 착한 사람인가?

우리는 왜 극락에 가야 할까? “이와 같은 모든 훌륭한 선인들을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런 극락에 갈 수 있다면, 나 역시 착한 사람이라. 역으로 만약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극락에 갈 수 없으리라.

나는 극락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인가? 과연 어느 정도 착하면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극락에 갈 정도로 착하려면, 어느 정도 착해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금생에 들어와서 나쁜 일은 한번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몸으로 행동으로만 착하면 되는가? 아니면 마음 속에도 번뇌나 망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일까? 만약 마음 속에서도 번뇌가 없어야 착한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손 들고 나설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착한 사람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전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관무량수경>은 아홉가지 단계(九品)의 왕생을 제시한다. 극락에 가는 사람들의 착한 정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착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극락에 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 이리라.

그뿐인가. <무량수경>의 제18원은, 도저히 극락에는 올 수 없는 악인을 규정하고 있다. “오역죄(五逆罪)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극락에 올 수 없다” 했다. 아무리 아미타불을 싣념(十念)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만은 제외한다”는 구절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극락에서 만날(俱會) 수 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윤리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 제시이다.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윤리의 제시로서 <무량수경>의 입장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과연 윤리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악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벌을 받아라.” 이런 입장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

는 분들의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종교마저 그러한 윤리적 차원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물론 종교라고 해서 윤리적 차원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윤리와는 다른 차원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종교 역시 오역죄나 정법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징벌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종교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제도의 대상이 아닌가? 그들은 불쌍한 중생이 아닌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불쌍하지 않은가? 불교가 진정으로 자비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들까지도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인지 어떤지는 잘 알 수



그림 · 박구원

없지만, <무량수경> 제18원을 깊이 사유했던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 한다. “착한 사람도 극락에 가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 이른바 ‘악인정기설(惡人正機說)’이다. 그러면 악을 행하리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지 모른다. 원효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도 하지 말라 했거든, 하물며 악이라.”

그러나 악한 일을 더 해라, 그래야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이 악인정기설은, 과연 <무량수경>의 반역(反逆)인가? 아니면 보완(補充)인가?

나 역시 아직 이 악인정기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한다. 그저 “나는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착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그야말로 상선인(上善人)이 아닐까.

나무아미타불!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